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집회는 동교회로 모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하반기 새교우환영회가 열립니다.

성탄축하의 밤 행사가 24일(토) 저녁 6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예배 중에 세례입교식과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후원행사가 20일(화) 오후 4시와 7시 세브란스병원 은명홀에서 열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교회 주방 설거지 봉사를 하실 분들은 1층 로비 서식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년모임이 잦은 때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보다 올바른 반성과 감사에 힘쓰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성가대 전원
12/25 식당 봉사 : 백혜숙 김희우 허정호 정현숙 박경선 조순덕
오늘설거지봉사 : 이지훈 이정림 박권동 김근중 이종현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노우중 박상준 정연희 정재정
떡 대 접 : 손규현 오보영
새 교 우 : 이종배(4남) 테릭후사인(5남) 박근혜(6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통48). 만유의 주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갑작스런 추위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만의 어려움을 살필 뿐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을 향해 내미는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주님의 눈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애3:21-23 인도자
 ♠ 교 독 문 118. 구주 강림(4)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98. 예수님 오소서 다함께
 ♠ 성경봉독 I. 눅10:30-37 최문희 선생
 II. 눅1:34-38 한상경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찬양대
 말 씀 I. 선물이 된 사람 김재흥 목사
 II. 예수님은 누구신가?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경연 김근종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윤미경 임주빈 최현옥 장대호 한숙경 김남종 오복순
 김정민 이해령 조병익 조정연 전예원 김유경 김지호 전해리 이용규
 노지현 박진혁 무명

월정헌금:

고숙이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박석희 조항미 박인혁 배부레 백성래
 송임희 윤주원 최윤선 조병주 하현철 최성애 김혜권 박재임 정현선
 무명

감사헌금:

이정희 손규현 오보영 이증자 김창경 박범희 박미영 황경순 곽새롬
 임정자 신진식 변혜정 민병배 문현미 박병구 김정애 강세기 이소애
 무명

생일:

무명

녹색꿈헌금:

왕수명 김준호 곽혜자 무명5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연 합 속 회	쉽
	박효선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김기석	이근식		

마음으로 읽는 글

겨울 풍경

겨울 햇볕 좋은 날 놀러가고/ 사람들 찾아오고
 겨우 해는 드는가/ 밀린 빨래를 한다 금세 날이 꾸무럭거린다
 내미는 해 노루 꿈지만하다
 소한대한 추위 지나갔다지만/ 빨래줄에 널기가 무섭게
 버쩍버쩍 땀을 곧추세운다
 세상에 뻐 없는 것들 어디 있으랴/ 얼었다 녹았다 겨울 빨래는 말라간다
 삶도 때로 그러하리
 언젠가는 저 겨울 빨래처럼 땀을 세우기도
 풀리어 날리며 언 몸의 세상을 감싸주는
 따뜻한 품안이 되기도 하리라
 처마 끝 양철지붕 골마다 고드름이 반짝인다
 지난 늦가을 잘 여물고 그 중 실하게 생긴
 늙은 호박들 이 집 저 집 드리고 나머지
 자투리들 슬슬 유통기한을 알린다
 여기저기 짓물러간다
 내 몸의 유통기한을 생각한다 호박을 자른다
 보글보글 호박죽 익어간다
 늙은 사내 하나 산골에 앉아 호박죽을 끓인다
 문밖은 여전히 또 눈보라
 처마 끝 풍경소리 나 여기 바람 부는 문밖 매달려 있다고
 징징거린다

- 박남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96(통94).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낮은 자 높이시고, 높은 자 낮추시려 구세주가 오십니다. 우는 자 위로하시고, 교만한 자 흠으시려 구세주가 오십니다. 주님의 일을 도우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하며 사셨는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셨던 생명과 평화의 길을 뒤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교회	손성현 전도사 기도 : 이광섭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유건형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의 박창운 조관행 허정윤 임영선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김금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기다림의 미학

어느 늦가을, 나무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전화가 왔다. 경기도 양평에다 땅을 산 뒤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어찌 된 노릇인지 나무들이 자꾸 죽어 간다고 했다.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내려가서 살 계획인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통에 그곳을 찾아가 보았다. ...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나무들에게 다가서는 순간, 문득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엄청난 크기의 동력 분무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약 치는 데 쓰는 거라고 대답했다. 나무에 벌레가 든 것 같은데, 대형 분무기 없이는 나무 꼭대기까지 약을 칠 수 없다고 했다. 벌써 일주일째 매일같이 약을 치고 있다는 그. 갑자기 그가 이곳에 내려와 살려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뭇 때문에 여기 내려와 살려는 거유?”

“자연과 벗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약을 왜 치시오?”

정말 몰라서 묻느냐는 듯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장 눈앞에서 나무들이 죽어 가는데 어떻게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대답해 놓고 조금 무안했던지 이런 말을 덧붙였다. 물론 농약이 땅을 망치고 주변 풀꽃들까지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루하루 병들어 가는 나무들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절로 나오는 한숨을 들키지 않게 삼킨 다음, 다시 물었다.

“그래서 효과는 있었수?”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더군요. 약을 좀 더 독한 걸 쓰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럴 생각이면서 나는 왜 찾았느냐고 되물고 싶었지만 일단 꺾 참았다. 그대로 돌아서면 그 나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뻔했기 때문이다.

나무를 키워 본 사람들은 말한다.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나무 키우는 일이라고. 나무처럼 까다로운 것도 또 없을 거라고.

틀린 말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무는 그저 해를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을 일찍 피워 버

린다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입맛에 안 맞는 환경을 만나면 좀체 자라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처럼 주사를 맞기도 한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무의 그런 꼴(?)을 보고 있으면 울화가 치미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가뜩이나 맘대로 안 돼 속상한데 나무에 벌레가 들고 썩는 모습까지 보게 된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아마 그 사람도 자꾸 병이 들어가는 나무를 보며 탄에 조바심도 났을 거고 답답하기도 했을 거다. 그러나 안 좋다는 농약을 쳐서라도 나무를 살리고자 한 게 아닌가. ...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를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벌레의 가장 큰 천적은 다름 아닌 새다. 새를 이용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처방이 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를 불러들일 수 있을까.

먼저 새집을 만들어 나뭇가지에 매달기 시작했다. ...

생각해 보면 나무를 아프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사람들의 ‘조급함’인 것 같다. 조급한 마음에 약도 치고 함부로 가지도 잘라 낸다. 그리고 그냥 두어도 될 나무에 영양제를 놓고, 거름도 듬뿍 안겨 준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무를 병들게 만든다. 왜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조급하게 따지며 이것저것 행할수록 나무는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간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자꾸만 잔소리가 늘어가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말해주고 싶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적어도 십 년, 이십 년을 앞서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설혹 내 대에서 그 결과물을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후대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나무를 대하면서부터 나는 내 안에 있던 조급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낀다. 나무를 키우는 일이 끊임없는 기다림의 과정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 여유를 찾아가야만 가능한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일 분, 일 초를 앞다투며 사는 시대에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인내심이 없어서 소중한 꿈을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예를 너무도 많이 봐 왔기 때문이다. 더 슬픈 일은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 싫어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기다려 보겠노라고, 견뎌 보겠노라고 말하면 인생이란 그런게 아니라며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다. 정작 자신의 인생이 어떤지도 모른 채 말이다. ...